

# 화훼 병해충 도감 ⑦

## 선인장



한경숙 연구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 ■ *Fusarium*에 의한 줄기썩음병

거의 모든 선인장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이다. 다습한 조건에서는 지제부 부분이 수침상으로 썩기도 한다. 물주는 과정에서 병원균이 튀어 비모란에도 병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처음에 작은 점무늬가 생겼다가 움푹 들어간 후 급속히 썩는다. 심하게 발생했던 포장은 뱃사미드로 토양 소독을 실시한다.



### ■ *Bipolaris*에 의한 줄기썩음병

주로 삼각주와 비모란, 산취 등 접목선인장에서 발생한다. 삼각주 줄기에는 초기에 연한 노란색의 수침상 병반이 생기고 병반이 진전될수록 갈색으로 짙어지면서 줄기 전체가 썩게된다. 병반표면에 검은색 가루형태의 포자가 다량 피어나기 때문에 *Fusarium*에 의한 줄기썩음병과는 구분된다.



### ■ 탄저병

주로 접목선인장에서 물이 고이기 쉬운 부위가 열은 갈색으로 무르는 증상을 나타내며 썩는다. 썩은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끈적끈적한 병원균 포자층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식물체가 젖지 않도록 물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풍기 설치 등 하우스 온도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 밀등썩음병

선인장 지제부 줄기가 피해를 받으면, 처음에는 수침상 암갈색 병반이 형성되고 결국에는 조직이 썩고 뿌리는 부패하여 소실된다. 삽목상이나 동계 휴면 후 봄에 포장에서 줄기에 발생한다. 심하면 병반이 줄기를 둘러싸므로 상부가 말라죽게 된다. 최근에는 드물게 발생하는 병이다.



## ■ 무름병

잎, 뿌리 등 포기전체에 발생하며, 처음에는 지제부 부위에 흑갈색 병반이 형성되고, 점차 확대되어 잎, 뿌리전체가 흑갈색으로 변하며 수침상으로 부패하게 된다. 다습조건에서는 물려 썩으며 악취를 발하고 끈적끈적 하게 무른다. 여름철 고온기에 많이 발생하고, 다습할 경우에는 병세의 진전이 빨라진다.



## ■ 바이러스병



바이러스 감염문제는 대목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줄기에서는 짙고 옅은 모자이크 무늬를 나타낸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삼각주 등의 대목에 접목된 선인장에서는 황화 및 기형으로 나타나며 심하면 고사한다. 식물체의 생육환경에 따라 병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나타나기도 한다. 작업시 칼 등의 기구를 통해서 전염되므로 이를 열소독하여 사용한다.



## ■ 나방류



나방류의 애벌레가 선인장을 깊어먹고 다니며 피해를 준다. 애벌레는 여러번 봉을 바꾸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약제를 사용해도 방제가 어려운 해충이다. Ⓜ